



**이리본가, 적십자 '우리는 늘 사랑을 나누지(G)' 동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은 익산시에 위치한 이리본가(대표 유재성)가 '우리는 늘 사랑을 나누지(G)' 모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리본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따뜻한 밤 한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되기를 바라고자 개업한 가게로, 고객 뿐 아니라 도내 어르신 이웃에게도 행복을 전하고자 '우리는 늘 사랑을 나누지(G)' 캠페인에 참여했다.

유재성 대표는 "어릴 적부터 소방의용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는 늘 사랑을 나누지(G)'는 매일 10만원 이상 정기후원으로 도내 위기가정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 캠페인으로 '우리는 늘 사랑을 나누지(G)'의 G는 사랑을 주다(GIVE), 좋다(GOOD), 인정하다(GRANT)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 향교동,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가족·부부교육**

남원시 향교동은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족 12세대 24명과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찾아가는 가족·부부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형성을 증진시키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위해 남원시가족센터와 연계해 진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소개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족들 간의 힐링을 위한 안마 체험이 진행되었다.

관계장 향교동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불편 사항을 파악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 요촌동 어르신 식사 제공**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25일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회장 조승진)이 관내 독거 어르신 등 50명을 초청해 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사 나눔 봉사활동은 지난 5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특별히 제공했다. 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까지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했다.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은 도덕적 국가관과 시민의식의 고취 및 지역사회의 복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설립 이념에 따라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위한 보일러 및 난방유 기탁, 주거환경사업 및 청소년 응원프로젝트 등 영향력 있는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나눔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승진 회장은 "요촌동 독거어르신들에게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식사나눔봉사를 하는데 외롭게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점심을 드시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석 요촌동장은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의 따뜻한 봉사활동과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대상자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치매여도 괜찮아' ... 공감대 형성**

**익산치매안심센터,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시민과 함께 즐기는 행사 마련**

익산시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제17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9월 21일은 국가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다. 이에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주간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센터 내부에서는 △센터 어르신·가족 작품전시회 △교구·만들기 체험 △가족작가예·선물뽑기 △다비시네마 △치매예방관리 유공자 표창식 등 센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외부에서는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복서캠페인 △인식개선 교육 △치매안심 가맹점 현판식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 등을 진행해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치매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며 "건강한 보건으로 행복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연중 시행한다. 등록환자에게는 조호 물품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이진운 보건소장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치매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며 "건강한 보건으로 행복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연중 시행한다. 등록환자에게는 조호 물품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치매극복의 날 맞아 '2024 전북 치매극복 박람회'**

전북자치도는 25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제17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2024 전북 치매극복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치매 극복의 날은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치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 그 공로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전북대학교병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기관과 개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우수 프로그램 개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장에서는 치매상담존, 스마트 건강 정보존, 스마트 돌봄 체험존 등 34개의 부스가 운영, 난타, 버스킹 등 다채로운 부대 공연도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자치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광역치매센터 1개소, 치매안심센터 14개소, 분소 12개소 등 총 26개의 치매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1 상담 및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상담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치매 극복의 날은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치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 그 공로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전북대학교병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기관과 개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우수 프로그램 개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장에서는 치매상담존, 스마트 건강 정보존, 스마트 돌봄 체험존 등 34개의 부스가 운영, 난타, 버스킹 등 다채로운 부대 공연도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자치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광역치매센터 1개소, 치매안심센터 14개소, 분소 12개소 등 총 26개의 치매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1 상담 및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상담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보호관찰소, 축법소년·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열어**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5일 전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 위원과 축법소년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축법소년과 보호관찰 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축법소년과 보호관찰 위원과 하나가 되어 팀별 릴레이 경기, 랜덤댄스,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종류의 체육행사를 통해 위원과 축법소년이 몸을 부대끼며 서로 교류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위원들이 모처럼 일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주보호관찰소 박영자 보호관찰위원의 회장은 "최근 소년범죄 사건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축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위원과 연계한 축법소년 지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섭 소장은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이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위원들이 모처럼 일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주보호관찰소 박영자 보호관찰위원의 회장은 "최근 소년범죄 사건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축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위원과 연계한 축법소년 지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섭 소장은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진안농협·고향주부모임, '고향반찬 나눔봉사'**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과 진안농협 고향주부모임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와 함께 '고향반찬 나눔봉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70여명을 대상으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반찬을 만들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드리고 대화를 통해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진행되었다.

강숙희 고향주부모임 회장은 "행사를 위해 고생해준 회원들과 후원에 동참해준 진안농협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 웃음이 가득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중 조합장은 "반찬 나눔 봉사활동으로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진안농협은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운봉 4개 여성단체 등, 삼시세끼 해결 앞장**

남원시 운봉읍 4개 여성단체(새마을부녀회 여성이용소방대,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와 지리산노인복지센터가 매월 2회씩 순번제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재료를 구입·손질하고 손수 만들어 취약계층 40가구의 삼시세끼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선정된 40가구는 1일 1가구 집중 방문의 결실로 운봉읍 맞춤형 복지팀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밑반찬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 정기적으로 반찬을 배달 지원하는 '명양 풍부한 밑반찬 나눔 사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특화사업으로 반찬 배달과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독거노인 등의 안부까지 살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1일 1가구 소용 행정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더 돌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소, 남원시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25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시 여성가족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전북거점형영양평등센터, 전북성별영양평가센터 등이 참석해 남원시가 추진하는 여성가족정책 현안사업 등을 공유하고, 성주류와 분야 정책의제 발굴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은 전북 지역 양성평등정책 및 성주류제도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남원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전북 지역 양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제도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 지역 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8월부터 시·군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순창, 익산, 고창에 이어 9월과 10월에는 남원과 김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은, 아이원지역아동센터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정읍시 아이원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78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소한 아이원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이 많은 시간 사용하고 있는 센터 물품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픈식은 정읍시 강한서 복지환경국장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박차희 회장, 아이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전복은, 전상익 부회장, 김태석 정읍지점장, 국중만 정읍시청영업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에서는 학습 및 프로그램 진행에 불편함이 컸던 오래된 책상 의자, 책장 등을 새롭게 교체하고, 아동들이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부족했던 사물함도 보강했다. 또한 이동식 화이트보드, 냉난방기, 블라인드 등도 지원해 센터에서 겪고 있는 시급한 어려움을 해결했다.

전상익 부회장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마땅한 책임으로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공부방 지원사업도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잘될 수 있는 바람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서남환경, 남원 도동동에 고구마 20상자 기탁**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25일, 사회책임 (유)서남환경 (대표 서덕교)에서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 20상자(상자당 10kg 환가 70만원)를 도동동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구마는 서남환경에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수확한 것으로, 도동동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용행정 방문기구 및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며, 서덕교 대표는 "작은 밭이 우리 이웃에게 달달하고 영양많은 기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기쁨이 두배가 되는 나눔의 실천이 펼쳐지는 도동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